

지난달 광주 고용률 하락·전남 상승…희비 엇갈려

호남통계청, 지역 고용동향

광주, 취업자 전년비 5천명 감소
전남, 3천명 늘어…서비스업 강세
지역 자영업자 1년새 2만9천명 ↓

지난달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의 고용 지표가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광주는 지난해보다 취업자가 줄고 실업자가 늘면서 전반적으로 악화된 반면, 전남은 취업자 증가와 실업을 하락이 동시에 나타나며 개선 흐름을 보였다.

호남지방통계청이 16일 발표한 ‘2025년 6월 광주·전남 고용동향’에 따르면, 광주의 고용률은 61.2%로 전년 같은 달보다 0.3% 하락했다. 성별로 보면 여성 고용률은 52.6%로 1.2% 떨어졌고, 남성

은 70.2%로 0.5% 상승했다.

반면 전남의 고용률은 66.9%로 0.3% 상승했다. 남성 고용률은 72.8%(+0.3%), 여성은 60.8%(+0.2%)로 모두 오름세를 나타냈다.

광주의 취업자 수는 78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5000명(-0.6%) 줄었다. 실업자 수는 2만5000명으로 4000명(+19.0%) 증가했고, 실업률은 3.1%로 0.5% 올랐다.

특히 여성 실업률이 3.8%로 1.7% 상승한 반면, 남성은 2.6%로 0.5% 하락했다. 전남은 취업자가 10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000명(+0.3%) 늘었고, 실업자는 2만7000명으로 2000명(-6.9%) 감소했다. 실업률은 2.5%로 0.2% 하락했다.

여성 실업률은 1.7%로 0.5% 줄었고, 남성은 3.2%로 전년과 같았다.

산업별 취업자 수를 보면 광주는 건설업(3000명, +4.5%), 도소매·숙박·음식점업(4000명, +2.9%),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2000명, +0.5%) 등에서 증가했지만, 농림어업(-8000명, -33.5%), 광공업(-4000명, -3.9%), 전기·운수·통신·금융업(-3000명, -2.7%)에서 감소했다.

전남은 전기·운수·통신·금융업(1만2000명, +16.1%), 광공업(1만3000명, +13.2%),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1만6000명, +4.5%) 등에서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농림어업(-2만5000명, -11.5%), 건설업(-6000명, -7.4%), 도소매·숙박·음식점업(-6000명, -3.5%) 등은 줄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광주는 임금근로자 가운데 임시근로자가 1만2000명(+

9.4%) 늘었고, 일용근로자는 2000명(-5.4%) 줄었다. 전남에서는 상용근로자가 1만9000명(+4.9%), 임시근로자가 3000명(+1.6%) 각각 늘었으며, 일용근로자는 1000명(-1.5%) 줄었다.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자는 광주에서 무려 9.2%에 해당하는 1만4000명이 줄었으며, 무급가족종사자도 1000명(-7.4%) 감소했다. 전남 역시 자영업자 1만5000명(-4.9%), 무급가족종사자 4000명(-4.8%) 감소하며, 지역 골목상권의 장기 침체를 반영했다.

근로시간별로 광주는 주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60만2000명으로 5000명(+0.8%) 늘었고,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17만3000명으로 1만명(-5.6%) 감소했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8.8시간으로 지난해와 같았다.

전남은 36시간 이상 취업자가 70만8000명으로 2만3000명(-3.1%) 줄었고, 36시간 미만은 28만9000명으로 1만5000명(+5.3%) 늘어 단시간 취업자 비중이 커졌다. 전남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7.4시간으로 1시간(-2.6%) 줄었다.

경제활동인구는 광주가 80만7000명으로 1000명가량 감소했고, 전남은 104만3000명으로 2000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광주 47만명으로 보합세, 전남은 47만7000명으로 3000명 줄었다.

15세 이상 인구는 광주 127만7000명(-2000명), 전남 151만9000명(-2000명)으로 모두 감소하면서, 저출산·타지역 유출에서 비롯된 인구 감소의 그늘이 고용 기반인 잠재적인 경제활동인구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양새다.

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광주신세계, 갤럭시Z 폴드7·플립7 팝업스토어 운영 광주신세계가 전작보다 훨씬 얇고 가벼운 새로운 갤럭시 상품을 선보여 눈길을 끈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20일까지 1층 광장에서 ‘갤럭시Z 폴드7’과 ‘플립7’ 등 신상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팝업스토어를 진행한다. 행사장에서는 AI체험존과 포토부스를 운영해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한다. 갤럭시Z 폴드7은 폴더블 시리즈 중 가장 얇고 가벼운 디자인을 구현해 휴대성을 높였다. 특히 기존 갤럭시Z 폴드보다 메인 디스플레이 사이즈가 11% 더 커졌고, 펼쳤을 때 두께는 4.2mm로 그립감이 뛰어나며 두께와 무게를 대폭 줄이면서도 강력한 내구성을 갖췄다는 것이 특징이다. 사전예약 및 구매는 본관 8층 삼성스토어 매장에서 가능하다.

광주신세계 제공

현대차, 전동화 상용 플랫폼 ‘ST1’ 연식변경 출시

경제형 트림 ‘스타일’ 추가

현대차는 전동화 상용 플랫폼에 기반한 물류 특화 차량 ST1의 연식 변경 모델 ‘2026 ST1’을 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신형 ST1은 76.1kWh 배터리가 탑재돼 카고 기준 317km, 카고 냉동 기준 298km의 1회 충전 주행거리를 갖췄다. 또 350kW급 초고속 충전 시스템 기준 배터리 용량의 10%에서 80%까지 20분 만에 충전이 가능하다. 현대차는 고객 의견을 반영해 신형 ST1 스마트 트림에 1열 신바이어 거울·동승석 어시스트 핸들·동승석 카 매트를 기본 적용했다.

아울러 구매 부담을 낮추기 위해 경제형 트림인 ‘스타일’을 추가했다.

스타일 트림은 기존 스마트 트림 대비 가격은 낮으나 전동식 주차브레이크, 전후방 주차 거리 경고, 실내 V2L 등 편의·안전 사양이 그대로 적용된 것이 특징이다. 신형 ST1에는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할 수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기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도 탑재됐다.

이중 새롭게 적용된 물류 앱 ‘센디’는 AI(인공지능) 기술로 공차율(빈 차로 주행하는 비율)을 최소화하고, 최적 운송 경로를 제공한다.

현대차는 카고 스타일 트림 기준 최대 2000만원 중반대의 보조금 및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어 구매 부담이 크게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현대차는 신형 ST1 출시를 기념해 7년 이상 차량을 대상으로 소형상용차 보유 고객에게는 50만원, 그 외 차량 보유 고객에게는 30만원의 할인을 제공한다.

박소영 기자

광주상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 개선해야”

인증기관 부족·심사기준 불일치 대통령실·국회·국토부 등에 건의

광주상공회의소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의 개선안을 지난 15일 대통령실과 국회,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BF 인증제도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는 물론, 모든 국민이 공공시설과 생활공간을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2008년 도입된 제도로 2015년부터는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모든 공공시설물에 인증이 의무화됐다.

광주상의는 이번 건의를 통해 제도가 시행된 지 17년이 지난 현재까지 △인증기관 부족 및 수도권 편중 △예비인증과 본인증 간 심사의 일관성 부족 △복잡한 인증 절차에 따른 심사 지연 등으로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전국에 지정된 11개 BF 인증기

관 중 10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어, 지방 중소도시의 경우 현장 심사 및 행정 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다. 연간 인증 수요는 2015년 188건에서 2024년 2640건으로 약 14배 증가했으나, 이에 상응하는 심사 인프라 확충은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다.

심사기관의 지역 편중 외에도, 심사기준의 일관성 부족 문제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서로 다른 기관이나 심사위원이 수행하는 경우, 동일한 항목에 대해 예비 단계에서는 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본인증에서는 부적합 판정을 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남도교육청 산하 A유치원은 유아용 장애인용 양변기를 설치하려 했으나, 예비인증 단계에서는 “유아용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성인용으로 변경하라는 지적을 받았다. 그러나 본인증 단계에서는 해당 시설이 실제 사용자

에게 부적합하다는 판단으로 다시 유아용으로 교체해야 했고, 이로 인해 설계 변경 및 예산 낭비가 발생했다.

이외에도 대전 대덕구에서는 최근 5년간 평균 BF 인증 소요 기간이 약 330일에 달했고, 이로 인해 준공이 지연된 사례도 4건에 이르는 등, 전국적으로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에 상의는 △권역별 인증기관 확대 및 지역 간 균형 배치 △심사 기준의 정량화 및 표준화 △예비·본인증 간 이력관리 시스템 도입 △심사위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평가제 시행 등을 통해 인증제도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광주상의 관계자는 “BF 인증제도가 형식적 심사에 그치지 않고, 실제 이용자의 관점에서 편의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며 “현장의 혼선과 비용 낭비를 줄이기 위해 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권범 기자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노사간 정상화 방안 협의”

“조만간 화제 수습 로드맵 발표” 노사 협의 최우선…다각적 검토

금호타이어가 광주공장 화제 수습 로드맵을 이달 중 발표하겠다고 한 가운데 현 부지 재건과 합평 이전 등 정상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두고 노사 간 협의를 진행 중이라는 입장을 강조했다.

금호타이어는 16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이번에 발표할 로드맵은 합평 이전 계획이 아닌 화제 수습과 공장 정상화에 초점을 맞춘 로드맵”이라며 “여러 안을 두고 논의 중이며, 노사 협의가 돼야만 최종 발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발표 시점은

이달 중 가능성이 있지만 협의 시점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금호타이어는 현 부지에 생산시설을 재건할 것인지, 계획했던 합평 빛그린산단으로 이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현재 다양한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자금 사정, 고용 유지 등 노사 상생을 위해 여러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기존 부지 활용할 경우 이미 상수도, 전력 등 기초 설비가 완비돼 있어 공장 재건 후 빠른 생산 재개가 가능하다는 강점이 있다. 합평 빛그린산단 부지는 기반 시설부터 새로 구축해야 하기 때문에 투자 부담과 건설 기간, 설비 규모 확보 등 모든

면에서 사실상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금호타이어의 설명이다.

금호타이어 측은 “합평 이전은 장기적으로 가야 할 방향 중 하나로 검토되고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노사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또 광주공장 정상화보다 유럽 공장 신설을 우선시할 것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금호타이어 측은 “유럽공장 설립 계획은 이미 2022년부터 논의돼 온 것으로, 주요 이유는 관세와 물류비 부담 때문”이라며 “현재 유럽 판매 물량의 대부분을 중국에서 공급하고 있어 유럽공장 설립은 현지 생산 필요성 때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박소영 기자

광주경총 “조직적응·장기근속” 아침 식사·문화행사 지원

광주경영자총협회는 ‘내일이 행복한 AI, 반도체 기반 일자리 잡고(Job Go) 사업’에 대한 사업참여기업의 신입직원 조직적응 및 장기근속 도모를 위해 아침 식사 또는 문화행사 지원 프로그램을 오는 31일까지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참여기업은 10개사로 신입직원 조직적응에 따른 조기 퇴사 방지 및 조직화합 문화 형성으로 조직적응과 장기근속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원 방법은 조직적응 및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지원기업의 수요조사를 통한

아침 식사(7개사) 또는 문화행사(3개사)를 선택해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아침 식사는 기업체를 직접 찾아가 커피차를 활용해 샌드위치와 음료 등을 지원하고 문화행사는 영화 관람권 티켓을 제공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일자리사업부(062-654-3427)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